

# ‘모아이 석상’ 수백 개 산불에 훼손 “복구 불가”

칠레 이스터섬의 명물인 모아이 석상 수백 개가 산불에 훼손됐다.

지난 6일 칠레 문화예술유산부에 따르면, 사흘 전(3일) 칠레 본토에서 3,500km 떨어진 이스터섬에서 산불이 일어나 모아이 석상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산불은 이스터섬이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 간 봉쇄돼 있다 지난 8월 개방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했다.



▲ 칠레 이스터섬 명물 모아이 석상 수백 개가 산불에 훼손되어 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연합뉴스

인 이 섬을 찾아오면서 외부 세계에 알려졌다. 섬의 이름이 부활절을 뜻하는 이스터(Easter)가 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원주민들인 폴리네시아인들은 이 섬을 라파누이라고 불렀다.

섬 전체에 1,000여 개의 모아이 석상이 있지만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산불 피해 지역엔 모아이 석상 수백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섬

페드로 에드먼즈 파오아 이스터섬 행정 책임자는 “산불은 관광객의 실화이며, 피해를 입은 석상들은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 원주민들은 모아이 석상을 조상의 영혼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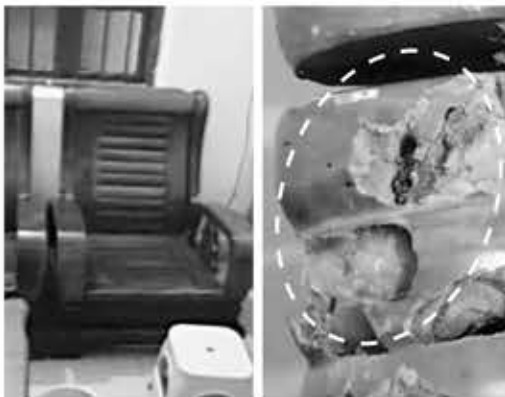
사람 모습을 한 거대한 모아이 석상은 유럽 탐험가들이 1722년 부활절 일요일에 서늘 면적의 4분의 1 정도

칠레는 1888년 이스터섬을 합병한 뒤 한동안 양 사육지로 이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섬 이름도 라파누이로 다시 바꾸고 유적지로 보호하고 있다.

# 애지중지 원목가구 알고 보니 시멘트

애지중지하던 원목 가구가 시멘트 위에 얹은 나무를 붙여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중국 광둥성에 사는 60대 여성 우 씨는 지난해 원목 가구세트를 6,000위안(약 1,000달러)에 구매했다. 가구가 맘에 든 우 씨는 하루에 한두 차례씩 가구 곳곳을 닦았다.



▲ 고가의 원목 가구는 말에 속아 애지중지했던 가구가 사실은 시멘트를 채운 가짜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사진=웨이보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고작 6,000위안을 주고 구매한 가구가 진짜 원목인 줄 알았느냐?”는 조롱하는 듯한 상점 주인의 답변이었다.

우 씨는 상점 주인과 통화 직후 함께 구매했던 또 다른 가구들을 문질러 닦자 연달아 시멘트 조각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확인. 골장 문제의 가짜 원목 가구들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런데 가구를 구매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달 초 가구 일부에서 시멘트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평소 공들여 닦았던 소파 팔걸이 부분이 부서지면서 시멘트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수의 누리꾼이 “단돈 6,000위안으로 고가의 원목 가구를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면서 “상점 주인도 잘못이지만 구매자 역시 무책임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 씨는 가구점 주인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런데 우

# 세계 최대 핑크 리본 기네스 등재



▲ 테타스 데 비아나 정상에 펼쳐진 세계 최대 핑크 리본. 사진=ondacero.es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 리본이 만들어져 기네스에 등재됐다.

스페인 과달라하라에 있는 쌍둥이 산 ‘테타스 데 비아나’ 정상에선 8일 초대형 핑크 리본이 펼쳐졌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에 대한 예방의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전개되는 행사다.

길이 247m, 폭 26미터 핑크 원단을 해발 1,116m 산 정상까지 운반하는 데만 자원봉사자가 540여 명이 참가했다. 핑크 리본의 면적은 5,420㎡. 아랍에미리트가 갖고 있던 종전의 세계 최대 기록 4,800㎡보다 600㎡ 이상 더 컸다. 기네스는 산 정상에서 세계기록 갱신을 공인했다.

둘들만 원단을 들고 정상에 오른 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즉석 손으로 바느질을 해야 했다. 미리 모양을 만들어 옮기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봉사자들은 “산에 오르기 전 여러 번 리허설을 했지만 실제로 정상에 대형 리본을 펼쳐다 보니 바람이 세계 부는 등 환경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벤트 주최 측이 테타스 데 비아나의 정상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테타스 데 비아나는 쌍둥이 산이다. 여성의 가슴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지명도 테타스 데 비아나다. 스페인어 지명 ‘테타스 데 비아나’는 ‘비아나의 가슴’이란 뜻이다.

##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